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듯하다 ②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경계인 듯, 경계를 인식하면 성품 따로 없는 것이, 경계라는 건 말이죠. 산하 대지인 듯이지 만약 산하대지가 뜻이 아니고 진짜라면 하늘과 땅이 생기기전부터 계속해서 허공으로 더불어서 죽 변하지 않아야 뜻 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겼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것이고, 물론 그 자체가 허공성이고 하나까 산하대지인 듯 아니에요? 우리의 몸뚱이도 난 듯, 늙은 듯, 젊은 듯, 죽는 듯 이거 아니에요? 전부 지금 듯 판에 노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듯 여러분이 설법 듣는 듯, 이거 아니에요?

이 듯을 참으로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단이 나, 아단이 아단 난 듯이지 참은 아니거든. 아단이 영원히 계속은 아니거든. 아단하다가 없어지면 그대로 있어버려. 판 생각을 해, 그거 전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전부 허공성이고, 그러면은 경계인 듯 성품인 듯. 경계 역시 허공성, 성품 역시 허공성. 내가 있음으로서 경계도 인정이 되는 거라 말이죠. 또 그 경계의 그 자체로 봐서 전부 허공성이거든. 그래서 헛 거 나뉠 것이거든요. 우리의 몸뚱이도 헛 거 나뉠 거라 말이죠. 그러면 이 늙음이 다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성에서 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성에서,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의 심성에서 말이며, 전성체, 온전 전자, 성품 성자, 전성체에서 비로소 유정무정이 갈라진 것이 거든. 그러나 이 유정물들은 슬기가 있어, 전기, 저전 슬기가 없어. 그러나 결국은 한 가지여, 우리도 지금 슬기 없는 것 가지고 있거든요. 이 머리털 이거 슬기 없거든요. 손톱이나 살이나 이거 성품 없으니 슬기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걸 내가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향해서 유정물이라 할 따름이지 실에 있어서는 이거 슬기 없는 거예요. 성품 없는 거예요.

성품이 있어야 비로소 슬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법하는 듯 하지만은 말이죠. 그런 듯밖에는 안되고 또 내가 살아 있는 듯 하지만 전부 듯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듯 속에 우리가 놓고 있어요. 듯, 그러나 그 듯은 우리말로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뜻을 따릅니다. 이걸 참말로 알아서 여기서 생사결판

이 나는 거라,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계와 성품이 어떻게? 둘인가 하나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되겠느냐 말이죠. 그 마음 씀씀이 역시 그것도 허공성이고 이것도 한 번 가져 보는 듯 하는 거예요. 진리란 것이 바로 깨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습습논이만 하면 우리의 분으로 봐서는 처음에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을 겁니다. 본래부터 나오는 분들의 이런 얘기합니다. 처음 나온 분들은 처음 들을 겁니다. 전부 뜻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에 가는 듯, 밥을 짓는 듯,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듯, 전부 뜻 아니에요? 우리가 살림살이를 이루어서 사는 듯.

“
허공은 하나이니 진리가 하나
우리 몸뚱이도 헛것 나뉠 것
살림살이 이루어서 사는 듯
‘듯’ 속에 놓고 있다

몸 밖 아닌 내면에서
진짜를 찾아야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 가정을 이룩하는 것도 뜻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도 뜻이고 또 이 뜻을 안 해서 안 되지, 전부 뜻이예요. 우리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어느 놈이 진짜입니까? 전부 뜻이니 말이지. 그러니 전부 뜻이니 우리는 진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짜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걸 두 말할 것 없이 내 자신에서 찾아야 되지 내 몸 밖을 향해서 찾은 곳이 없어.

그러하기 때문에 허공은 하나거든요. 그러나 진리가 하나 아니에요? 이거 참묘한 겁니다. 허공은 하나이니 진리가 하나예요. 진리가 하나이니 지(자기) 배가 고프면 지가 먹어야 돼. 내가 배가 고프는데 다른 사람까지 배가 고프지는 않아. 내가 배가 부르는데 다른 사람까지 배가 부르는 않거든. 전부 지 개인이라. 또 그

리고 가족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를 포함한 가족이지 나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 나중에 갈 때는 지 혼자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뜻하는 이런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전부다 관련성이 있지. 사실은 있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뜻에 지나지 못한 거여. 그러하니 모든 것이, 차별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체 만법 일체 사실이 어느 것이 멀고 가까운 인연관계에 있어서, 요셋말로 현실이라 합니다. 또 현실이라 해도 맞지. 그와 같이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이 야단하지 만은 사실에 있어서 전부 뜻이예요. 어느 것 뜻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하니 여러분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확답을 해야 비로소 견성을 완전히 하게 됩니다. 확답 못하면 견성 안 됩니다. 좀 시일이 걸립니다. 경계하고 내 성품하고 틀이 아니라 말이여. 따로 없다. 어째 그러냐.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째 그 돌하고 나하고 성품이 한 가지냐. 이거 의심나지 않습니까? 의심나니까 이걸 하나로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 공부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보통 다른 공부하고는 달라서 어디까지라도 하나의 진리를 그대로 파헤치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를 파헤쳐 놓으면 그 까진 거, 생사나 복이니 뉘이니 전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오랫동안 모습습논이 하던 습성이 있어 놓으니 좀체 이 말이 곧이 안 들립니다. 아마 뜻에 있어서는 다소 납득이 갈 겁니다. 생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해결이 될 겁니까? 왜 그러느냐.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기 때문에 하는 말이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굉장한 뜻을 하더라도 나중에 털릴 털고 혼자 가는 것 아니에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내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그렇습니다.

절대 날 믿어야 됩니다. 날 믿으라는 건 내 육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믿는 겁니다. 물론 내 성품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물론 믿겠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나무아미타불... 깨친이에게 귀의”

8. 십념(十念)

南無阿彌陀佛
우리는 참회하는 진언을 읊었다. 이제 다음은 나무아미타불 하는 아주 큰 구호를 외우는 일이다. 아미타불로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성인을 모셔 놓고 이 도량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나무(南無)는 돌아가 의지하는 것. 아(阿)는 없다가 부정사, 미타(彌陀)는 커다란 생명, 이를 번역하면, 수량(壽量), 또는 자비와 사랑의 빛이라는 뜻으로는 광량(光量)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아미타(阿彌陀)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목숨, 무량수(無量壽) 혹은 헤아릴 수 없는 자비의 빛, 무량광(無量光)이라고 하게 된다. 이렇듯 번역이 두 갈래로 벌어져 어렵게 되므로 그냥 아미타라고 칭하는 것이다. 불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① 자기가 깨치고 ② 남을 깨치도록 하고 ③ 깨친 바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친 행동을 구경까지 밀고 나가 실천하고 ④ 동시에 남에게 실천하기를 권하고 요구하는 뜻이 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란 헤아릴 바 없는 대 생명을 깨친 이에게 우리가 돌아가 귀의한다. 또는 헤아릴 수 없는 대 자비를 베푸 부처님에게 돌아간다는 뜻이 된다.

이것을 주문이라 해도 좋고 명호라고 해도 괜찮다. 원래 주문은 간단한 것이다. 이 여섯자는 간단하지만 그 속에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헤아릴 수 없는 대 생명, 헤아릴 수 없는 대 사랑을 베푸는 어른에게 돌아 간다는 것은 현대어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리가 될까?

대 사회관(大社會觀)을 깨쳐서 이를 철두 철미하게 자각하고 추궁하여 대 사회적인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이다. 자그마한 개아(個我), 예고에 급급하지 않고, 구차스런 타산에 얽매어 허덕거리는 생활을 청산하고, 대 사회에 뛰어들어 이를 직접 호흡하고 이를 위하여 힘쓰고 성취토록 하려는 그러한 대 인격(大人格)을 실현한 그분한테로 돌아가 의지하겠다는 하는 소리가 된다.

이러한 대 사회관, 대 사회성(大社會性), 대 사회적(大社會的)인 행동이라는 어휘에서 거창한 이상주의(理想主義)를

연상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러한 어떤 특정한 관념형태(觀念形態)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더 알기 쉽게 말한다면 결국 ‘나는 사람이다’ 하는 인격(人格)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대 사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느끼고 보은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은 보은 감사를 표현한 말이다. 인간으로서 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아니라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행위이며, 이제부터는 몇몇이 사람 노릇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말이 된다. 간단한 말이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를 사람이라고 알아 주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며 지금은 하나의 인간이 사회에 대하여, 전 우주에 대하여 인격을 선언하는 엄숙한 순간인 것이다.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 때 그때야말로 참회가 있고, 반성을 하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자각이 생기는 때가 아닐까 보나. 끝내 무지 몽매하고 몰지각(沒知識)하여 영원히 무명(無明)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내는 것보다는 제아무리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죄악이라고 깨닫고 반성한 나머지 나는 이제 한번 사람 노릇을 하고 죽어가자고 다고 외친다면 이보다 더 대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제불(諸佛)의 본원(本願)이고 또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인 것이다.

아주 간단한 구호로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즉 ‘나는 사람이요’ ‘이제부터는 사람 노릇을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깨닫고 한 시도 이 생각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에게 나무(귀)의한다. 감사한다. 보은한다.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대지의 은혜를 받았다. 태양의 열과 온기를 받았다. 수분과 산소와 생명을 유익한 못 영양을 섭취하였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물며 곡식과 옷과 일용품(日用品) 주택 문화시설 등 비록 정당한 댓가를 치루고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서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일까. 은혜를 느낄 줄 알고 사회에 보답하고 보은(報恩)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사람다운 정상적인 자리로 찾아든 것임을 깨닫는다. 이런 모든 생각이 나무아미타불에는 들어 있다.

우리를 수행자(修行者)들이 생활하는 이 도량(道場)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인간으로서의 대사(大事)도 결정하였다. 그 대사인즉 나무아미타불이며 이는 대 사회의 헤아릴 수 없는 신성한 생명을 깨친 그 자리에 귀의한다는 것이며, 대 사회의 생명을 깨치고 실천한 대인격 자에게 귀의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입니다.

후히 선종(禪宗)에서 몰지각한 사람들 중에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고 염불하는 것을 근거가 약한 것으로 치고 우둔하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참선(參禪)을 할 줄 몰라 그러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모르는 소리다. 염불만하면 살부모(殺父母)와 같은 중죄(重罪)를 저질렀더라도 다 사죄(赦罪)가 되는 것이며, 임종시에 나무아미타불 열 번만 뇌이면 극락세계(極樂世界)로 간다고 하니 그야말로 미련한 사람 꾀는 소리라고 헐뜯어 말들을 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정토문(淨土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뿐더러 나무아미타불의 뜻도 교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비방만 일삼는 무리다. 가령 그들 말대로 오역죄(五逆罪)를 짓고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 메모리폼

나만의 완성세계 기(giban)

기(giban) 완성 단계와 완성 후 사용하는 다양한 나만의 완성세계 기(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기(giban)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기(giban)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시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